

# 시선

## 사설

### 공감 어려운 '완벽한 계획' 처음부터 목소리 들어야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출범을 두고 학내 일각에서 내용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원사회와의 대화 없는 일방적 거버넌스의 추진을 두고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단 이번 일을 차치해 두더라도 우리학교에는 과거 몇 차례나 이런 구도의 논란이 있어왔다.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학교의 자세와는 모순되게도 우리대학이 발표한 계획 중 몇몇은 구성원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발전위원회, 프라임 사업, 미래창조스쿨, 융합전공 등 순식간에 열거해 낼 수 있는 이름만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교가 '완벽한 안'을 처음부터 제시한 것이다. 몇몇 사안은 결벽증적 모습이 일회 정도로 치밀한 안이 마련된다. 본관 부서 어느 곳에서 조용히 진행돼 세상 빛을 보았을 그 계획들은, 그러나 입안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반발과 역풍을 맞는다. 지난한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소요한 계획은 그때 가서야 다시 한 번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되는 산고를 겪는다. 입안자는 탈력감을, 구성원은 피로와 식상함을 느낀다.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은 없다. 대학의 행정은 결국 대학을 이루는 축 중 둘인 교수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틈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시점이다. 어느 날 '눈앞에 들이밀어진' 계획을 두고 구성원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학교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은 대부분 상의하달이다. 계획이 형태를 갖추고 공개되기까지 정책의 주체인 구성원이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무엇인지를 모르니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그 결과물이 구성원의 현실과 유리되고, 반발이 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지금은 공개하기 좀 그렇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사업성격이나 비밀을 고려해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일도 있음을 이해한다. 언론이 일반적 경영행위에까지 사사건건 판축을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대전제는 언제나 하나다. 구성원을 위해 보다 나은 경희대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오히려 큰 밑그림의 단계에서 일찍 공론화를 하는 것은 어떠할까. 제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디테일을 채워 넣는, 하의상달 구조 말이다. 만들고, 반발에 부딪히고, 또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정이라면 애당초 처음부터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반발에 부딪혀 보자는 것이다. 구성원의 삶에 지대하고도 세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가지 않은 길이다. 효율과는 정 반대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택해왔던 길에서 솔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다면 갈림길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여백이 어떨까.



### 이 주의 주제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TF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사람 이야기에는 강한 이끌림이 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작은 변화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는 힘이 사람 사는 이야기에 있는 이유다. 그렇기에 글에 사람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우리학교 비정규직 실태를 다룬 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담고자했다.

지난해 11월 우리학교를 떠난 비정규직 김 씨를 어렵게 알게 됐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김 씨는 퇴사 한 달 전 부서로부터 정규직 전환도 제안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정규직 전환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승인 거부' 학교는 단호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김 씨는 지난해 8월 31일을 끝으로 학교를 떠났다. 여는 우리학교 비정규직처럼.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2017년 우리학교 비정규직은 463명으로 전체직원 905명의 51.3%에 달한다. 52.8%의 고려대와 1.2위를 다투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모두 50%를 넘어섰지만,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었다.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풍자되는 우리 사회가 우리학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희대 노동조합(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기형적인

비정규직 비율을 두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올해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정규직 전환의 문이 드디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비정규직 TF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노조와 인사처가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TF에서 양측이 우리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의견 접근을 보였고, 향후 논의에서 2년 단계계약 내 놓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정작 비정규직에게 허락된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TF가 진행되고 있었다. "교수들까지 우리를 조교로 취급했어요. 비정규직을 구별해 정규직에게만 직원다운 대우를 했어요. 비정규직은 사실상 조교 취급당했죠." 김 씨는 우리학교 비정규직이었던 지난날을 이와 같이 떠올렸다. 김 씨의 토로에는 우리학교 비정규직의 현주소가 낱알이 드러나 있다.

직원다운이란 이들에게 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다. 직원다운 대우는 정규직에게만 허락된다는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차별의 벽을 허무길 위해서 이번 TF에 비정규직의 이야기가 반드시 담겨야 하는 이유다.

## 비판과 비난, 그 한끗 차이

###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이제는 볼 수 없게 돼 버린 '무한도전'이 2년마다 개최한 '가요제' 특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노홍철과 싸이의 '흔들어주세요'다. '님이라는 글자에 다 접하나 꼭 짝자마자 바로 남 된다'라는 가사는 지금도 떠오르는 구절이다. 처절하게 사랑했던 연인이 한 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의 아찔한 기억을 이토록 유쾌하게 풀어냈으니 말이다. 그 찰나를 '접 하나'라고 표현한 그들의 센스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다.

지난 기사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다. 나를 화기에애하던 분위기는 내가 한 기자의 기사를 평가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이게 기사야?" 가시 돋친 한 마디가 화근이었다. 그 첫 마디 이후에는 화도 내지 않았고 차분하게 기사의 장단점을 짚은 데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준 터라 '다음엔 더 잘하겠지'라는 뿌듯한 생각으로 회의를 마쳤다.

### 건전한 비판 이어나가길

그러나 다음날, 기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 기자는 나의 감정 섞인 첫 마디로 인해 그 뒤의 피드백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인 비판에 감정이 한 스푼 섞이면 비난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야말로 '말 하나' 꼭 짝자마자 남 됐던 순간이다. 백 마디의 비판이 아무리 타당하고 옳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더구나 상대방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분노, 억울함, 자존심 등을 건드리는 한 마디는 이후의 이성과 논리를 요단강 건너게 만드는 촉매제에 불과한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비판에는 합당한 논리와 더불어 더욱 잘됐으면 하는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애정이 담겨있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고, 이 또한 비난과 다르지 않다. 논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꼬리잡기 하듯 알맹이 없는 말들만이 허공에 맴돌 뿐이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에는 대안도 수반되어야 한다. 비판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발을 뺄 지'와 같은 해결책이 있어야 진짜 나아갈 수 있다. 이렇듯 비판다운 비판을 하려면 참으로 어렵다.

법륜스님은 "비난과 비판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머리가 아프면 비난이고, 머리가 멍석해지면 비판입니다." 길다면 길었던 대학주보 생활의 마지막을 앞두고 나는 기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을까, 멍석하게 했을까를 곰곰이 보는 요즘이다. 기자들의 음주 횟수가 증가한 걸 보니 애석하게도 술이라는 두통약이 필요했던 것 같다. 요 근래 '술 한 잔 하자'고 연락 오는 취재원들도 급증하니, 그들에게도 나는 썩 좋은 기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대학주보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고 느꼈을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 대학주보는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의 공론장이 될 것임을 믿으며 마지막 세시봉을 마친다.

## 대학은 지금

### 모였다가 흩어지는 학생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 7일 한신대 총학생회(총학)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총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뇌물선거 무효"...한신대 총학, 총장 퇴진 촉구/한국대학신문, 2018.06.08) 기자회견 이후 총학은 "비리총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장공관 정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총학은 기자회견에서 "연총장은 지난해 총장선거에서 초빙교수 A씨에게 전임 교수직을 약속하며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오는 12일 총학, 직원노조, 교수협의회, 대학본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에서 연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 결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대 수의대 학생회, 학생·소수자인

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수의대 H교수 성폭력사건 #위드유 연대'(수의대 연대)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수의대 H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H교수 공개 사과한다/대학신문, 2018.06.02)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H교수는 4월 말 학생 요구로 1학기에 맡은 수업을 중단했으며, 곧 공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태다. 수의대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H교수의 자진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사건 공론화를 저지한 학장단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전국 수의대생 1,089명이 서명한 '서울대 수의대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연서명문이 낭독됐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의 인권의식을 비판하는 '동아리연합회 인권의식 고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서울캠 동아리연합회 인권의식 고발 기자회견 열려/중대신문, 2018.06.07) 비대위는 지난 해 중앙동아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사건을 동연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연은 기자회견 끝에 "오늘 밝혔던 내용은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일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총여학생회 재개편 학생총투표' 안건이 가결됐다.(표결에 선 총여학생회/연세춘추, 2016.06.04.) '제29대 총여학생회 퇴진 및 총여 재개편 추진단'과 '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측이 주요 발제자로 중운위에 임회했다. 두 주제는 총여 자치권과 재개편 안에 대한 논의 끝에 '총여 퇴진은 하지 않되 재개편만 투표에 붙이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전자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전체학생총회(학생총회)가 지난 2017학년도 2학기에 이어 이번 2018학년도 1학기에도 무산됐다.(학생총회, 이번에도 또 무산/서울시립대신문, 2018.05.29) 정족수 미충족이 이유였다. 재학생의 10%가 현장에 참석하거나 사전 서면동의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져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워 개회가 불가능했다.

## 알림

###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